http://dx.doi.org/10.5392/JKCA.2015.15.05.242

#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

## Influence of Self-Identit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in Pastor s Wives: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 Experience and Depression

**김신섭, 정구철**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Sin-Seop Kim(kimss36@syu.ac.kr), Goo-Churl Jeong(gcjeong@syu.ac.kr)

**요약**

본 연구는 목회자 아내들의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목회자 아내 13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은 경로분석과 Sobel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아정체감과 영적 체험, 우울 및 주관적 웰빙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영적 체험과 우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아정체감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셋째, 자아정체감은 주관적 웰빙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없었다. 넷째, 영적 체험은 우울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목회자 아내들의 자아정체감과 영적 체험이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자아정체감 | 영적 체험 | 우울 | 주관적 웰빙 | 목회자 아내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spiritual experience and depression between self-identity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8 pastor's wives, and mediating effects were analysed through path analysis and Sobel test.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self-identity, spiritual experience, dep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but not between spiritual experience and depression. Second, spiritual experience and depression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within the relationship of self-identity and subject well-being. Third, self-identity had not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Forth, spiritual experience had not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depression.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explored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of self-identity and spiritual experience that could be taken to improve subjective well-being. In addition,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 keyword : | Self-Identity | Spiritual Experience | Depression | Subjective Well-being | Pastor`s Wives |

*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한국건강심리학회 제49차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발표를 하였음.

접수일자 : 2014년 10월 24일
수정일자 : 2015년 03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4월 21일
교신저자 : 정구철, e-mail : gcjeong@syu.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사모의 인생, 남는 건 곪아터지는 속" 2004년 한국여성신학 여름호의 특집기사 제목이다[1].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가정의 아내인 목회자 사모는 지금 행복한지 의문이 가는 제목이다. 목회자 아내들은 언제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여 기도와 성경을 통해 매일 영적인 경험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최근 10여년 간 수행된 많은 선행연구들은 목회자 아내의 정신건강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놓여있다고 보고하고 있다[2-5]. Beck의 우울검사를 통해 분석한 목회자 아내들의 우울 수준은 중한 우울상태 이상이 전체의 30.2%나 되어 목회자 아내의 정신건강이 위험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2]. 이는 통계청에서 고시한 2010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40세의 여성이 14.2%정도이며[6],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30~60대가 우울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약 13.2%~17.4% 정도라고 나타난 수치와 비교해 보아도[7], 목회자 아내의 우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목회자 아내의 우울이나 삶의 질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목회자 아내는 남편의 잦은 부임 교회의 이동으로 인해 거주지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목회자 아내라는 신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지 않아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일과시간 외에도 언제나 교인들과 교회의 업무에 매진하는 남편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저하되어 우울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상담할 사람이 주변에 극히 드물어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자아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영적 체험의 감소가 우울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2][5][8].

목회자 아내의 우울이 초래된 원인으로 여러 요인을 들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결혼 전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목회자 아내로서의 삶이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 이는 중년 여성들의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결혼 후 기대와 다른 삶으로 인해 자아정체감에 혼란을 경험하고, 이는 우울, 결혼만족도 및 안녕감 등 다양한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9-11]. 중년기는 연구에 따라 분류의 차이는 있으나 연령을 기준으로 폭넓게 살펴보면 대략 30세에서 65세 사이로 볼 수 있으며, 협소하게는 40세에서 65세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갱년기 증상을 비롯한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폐경 및 자녀의 성장에 따른 여성의 역할에 있어서도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10]. 특히 폐경과 얼굴의 화끈거림, 발한 등 자각할 수 있는 신체적 갱년기 증상들을 경험하면서 우울감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적 위기감을 더욱 느끼게 된다[12]. 이러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우울, 삶의 질 등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3].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으나, 중년기 여성의 경우에도 청소년기와 같이 신체적, 심리적 변화의 경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자아정체감의 위기가 초래된다.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의 혼란은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목회자 아내는 일반적인 중년여성의 특성과 더불어 목회라는 특수한 환경이 더해져서 자아정체감의 혼란과 정신건강의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목회자 아내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목회자 아내는 "목회자인 남편의 아내인지 교회의 사모인지 역할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인 목회자의 정체성과 자신의 목회자 아내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4].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위기감을 매개변인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은 삶의 질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다양한 일반적 특성과 가족관계 등을 통제하고 중년기 위기감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때는 간접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자아정체감은 중년기 위기감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중년기 위기감은 삶의 질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간접효과가 나타나 자아정체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13]. 그러나 이러한 정체감의 혼란 속에서도 외적으로는 언제나 목회자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아정체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우울 및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9-11], 특히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은 갱년기 증상을 통제한 후에도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3],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년여성의 자아개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적 특성과 산과적 특성을 고려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산과적 특성은 최종 모형에서 제외되었고, 질병이나 남편문제, 혹은 주택과 같은 경제적 문제보다도 자아개념이 우울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14], 자아정체감의 혼란은 중년여성의 우울에 큰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중년기 목회자 아내의 우울과 관련해 자아정체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회자 아내라는 특성을 고려해보면 행복과 관련해 자아정체감이나 우울뿐만 아니라, 일반 중년 여성보다 더욱 영적인 부분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영성(spirituality)이란 삶의 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초월적인 특성과 관련되며[15], 최근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서 영성적인 부분에 대해 고려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년 여성의 영성이 자아정체감 및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16], 우울 및 삶의 의미와의 관련성도 제기되는 등 영성은 자아정체감 및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17][18]. 중년 여성의 영성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인 초월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 모두 웰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19]. 또한 국내에서 40세 이상의 기혼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영성, 우울 및 행복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중년여성의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통제했을 때에도 영성의 하위요인인 '내적자원'과 '연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에 영향을 미쳤다[20]. 여기서 영성의 내적자원이란 통제감이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같이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삶을 안정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의미하며[20], 이는 자아정체감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연결성은 '자신이 초월적 존재 및 타인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20], 이는 주변과의 상호작용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일의 영적인 체험을 개인 내외적으로 느끼는 특성과 관계된다. 특히 목회자 아내의 경우 교회 중심의 삶으로 인해 일반 중년 여성에게 나타나는 영성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과 우울 및 행복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심리학이 확산되면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웰빙, 삶의 질, 안녕감, 삶에 대한 만족도 등 다양하게 조작적 정의하여 연구하고 있으며[21], 이러한 구성개념들을 추상적으로 행복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목회자 아내의 행복은 주관적인 삶의 만족에 해당되지만, 자아정체감의 혼란이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삶의 기대까지 포함하고 있는 '주관적 웰빙' 척도를 사용해 행복의 개념을 측정하였다[21]. 일반 기혼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연구에서 중년여성의 영성과 우울은 행복과 매우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74), 우울도 행복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r=-.44) 중년여성의 행복에 영성과 우울이 매우 중요한 변수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남성들은 중년기에 행복감이 증가하는 반면, 여성들은 중년기에 오히려 행복감이 감소하는 현상은 중년 여성의 행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20]. 또한 국외에서 목회자 아내의 웰빙에 대해 일반 여성들과 비교 연구한 결과, 목회자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여성들과의 행복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목회자 아내로서만 살아가는 경우 행복이 가장 낮았고, 긍정적 정서나 삶의 만족에서도 일반 여성보다 낮게 나타났다[5]. 이러한 결과는 목회자 아내는 일반 여성들보다 행복하지 않고, 심지어 목회자보다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2], 목회자 아내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외를 모두 포괄하여 목회자 아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일은 쉽지 않다. 목회자 아내는

목회라는 특수한 상황 상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며, 자신으로 인해 남편의 목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 이는 목회자 아내를 대상으로 전문적 상담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에서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8.1%나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2], 상담 받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목회자 사모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목회자 아내는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는 목회자 아내의 행복에 직결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은 영성과 심리적인 우울에 영향을 미쳐 행복을 낮출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목회자 아내들의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 영적 체험, 우울 및 주관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 3. 연구 모형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행복과 관련된 최종 종속변수인 주관적 웰빙에 유의한 예측변수로 Baker와 Scott(1992)은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을 들고 있고[5], 김경신과 김정란(2001)도 삶의 질에 유의한 예측변수로 자아정체감을 제안하고 있으며[13], 자아정체감은 또한 우울에도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14][15]. 우울이 행복의 유의한 예측변수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28], 자아정체감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 아내의 독특성을 고려할 때 영적인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영성이 행복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9][30]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이 매개하는 모형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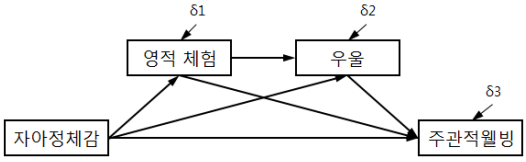


**그림 1.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개신교 1개 교단의 목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전국 목회자 아내 수양회에 참석한 목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배부 시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하였으며, 본 설문조사에는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으며, 설문 응답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설문조사는 대략 25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응답 도중 포기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3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경로분석을 위한 표본크기는 자유모수(경로 수)의 20배에서 현실적으로는 10배 정도까지 수용하고 있다(Kilne, 2005). 본 연구모형의 자유모수는 6개이므로 보수적으로 20배의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경로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크기는 유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6.4세(SD=8.7)였으며, 30대가 26명(20.0%), 40대 58명(44.6%), 50대 32명(24.6%), 60대가 14명(10.8%)이었다. 학력별로는 고등

학교 졸업이 12명(9.2%), 대학교 졸업이 106명(80.9%), 대학원 졸업이 13명(9.9%)이었다. 목회 사역 기간을 조사한 결과 5년 미만이 7명(5.3%), 5~10년이 20명(15.2%), 10~15년이 23명(17.4%), 15~20년이 23명(17.4%), 20년 이상이 59명(44.7%)으로 나타났다.

## 2. 연구 도구

### 2.1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 척도는 박아청(1996)이 타당화한 도구를 이경혜(1997)가 20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0][31]. 하위요인은 친밀성, 주도성, 목표지향성, 정체감 유예, 정체감 혼미, 자기수용성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6개의 하위요인은 각각 2~5개의 문항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하위요인별 분석은 수행하지 않고 전체 총점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정체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표 1. 영적 체험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N=138)**

| 문항 | 요인계수 | 공통성 | r† | α‡ |
|---|---|---|---|---|
| 1.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 .72 | .52 | .60 | .91 |
| 2. 나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경험을 한다. | .73 | .54 | .64 | .91 |
| 3. 예배를 드리는 중이나 혹은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에는 매일의 근심에서 벗어나 기쁨을 느낀다. | .66 | .44 | .46 | .92 |
| 4. 나는 나의 종교 혹은 영성 속에서 능력을 발견한다. | .57 | .32 | .49 | .92 |
| 5. 나는 나의 종교 혹은 영성 속에서 위로를 발견한다. | .77 | .60 | .65 | .91 |
| 6. 나는 내면의 깊은 평안과 조화로움을 느낀다. | .71 | .51 | .58 | .91 |
| 7.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 .69 | .48 | .67 | .92 |
| 8.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 | .80 | .63 | .79 | .91 |
| 9.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낀다. | .85 | .72 | .77 | .91 |
| 10.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낀다. | .64 | .41 | .56 | .92 |
| 11.나는 창조물들의 아름다움을 통해 영적 감동을 받는다. | .63 | .40 | .54 | .92 |
| 12.나는 나에게 주신 복에 감사함을 느낀다. | .71 | .50 | .57 | .91 |
| 13.나는 이기심 없이 남을 돌보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 | .54 | .29 | .47 | .92 |
| 14.나는 내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수용한다. | .40 | .16 | .30 | .92 |
| 15.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나 연합되기를 소망한다. | .51 | .26 | .37 | .92 |
| 고유값 (설명된 총 분산비율) | 6.77 (45.13%) | | | |
| KMO(Kaiser-Meyer-Olkin) | .89 | | | |
|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 $\chi^2$=1180.328 (p<.001) | | | |
| Cronbach's 훼 | .92 | | | |

†문항 – 전체총점 간 상관계수
‡문항 제거 시 Cronbach's 훼

### 2.2 영적 체험 척도(DSES)

영적 체험 척도는 Underwood와 Teresi(2002)가 타당화한 매일의 영적 체험 척도(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 Scale: DSE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15]. DSES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15문항이 매일의 영적 체험을 6점 Likert식 척도(6점-하루에도 여러 번, 5점-매일, 4점-거의 매일, 3점-가끔, 2점-어쩌다 한번, 1점-전혀 없음)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16번 문항은 별도로 '일반적으로 당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십니까?'라는 문항을 4점 Likert식 척도(4점-매우 긴밀하게 가깝다, 3점-매우 가깝다, 2점-다소 가깝다, 1점-전혀 가깝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원 도구에서는 16번 문항도 함께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문항 내용의 특성과 척도 응답의 특성을 고려할 때, 16번 문항은 현재의 상태이지 매일의 영적 체험 빈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아니며, 측정한 척도의 단위도 다르므로 영적 체험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원 도구를 연구자가 번안한 결과와 미국 내 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가 역 번역한 결과를 비교하여 상호 논의하고 수정과정을 거쳐 문항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상담학 박사에게 모든 번역결과를 제시하여 문맥과 의미 해석에 대한 감수를 받으며 상호 논의하여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

번역된 15문항의 영적 체험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영적 체험 척도의 각 문항과 전체총점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두 .30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을 요인분석에 투입하였다. 요인분석의 방법은 각 문항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 지를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므로 정규성 가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주축분석법(principal axis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의 적합

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KMO값은 .89로 기준 값인 .70보다 높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chi^2$=1180.328, p<.001), 자료는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은 선행연구가 주성분분석을 통해 2개의 요인구조가 나타났지만, 두 번째 요인의 설명량이 매우 낮았고, 이론적으로 영적 체험의 2요인 구조를 설명하지 못해 단일요인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고하였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요인 수를 단일요인과 2요인 구조로 가정하여 비교하였다. 2요인 구조를 가정하고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두 번째 요인의 고유값이 .743으로 1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스크리 도표(scree plot)에서도 단일요인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므로, 요인 수는 1개로 설정하고 재분석하였다. 단일요인을 가정한 요인분석결과[표 1], 각 문항의 공통성(communality)에서 3문항(13번~15번)이 .30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나, 요인계수가 모두 .40~.54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고,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값의 증가가 미미하여, 원도구와 같이 단일요인 구조의 15문항으로 최종 구성하였다.

영적 체험 척도의 준거에 근거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원 도구인 DSES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측정한 16번 문항과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r=.56(p<.001)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결혼 후 현재 본인의 영적 성숙의 수준을 5점 Likert식 척도로 조사한 문항과의 상관관계도 r=.43(p<.001)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적 체험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매일의 영적 체험 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2.3 우울(CES-D)

우울의 측정은 배성우와 신원식(2005)이 타당화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척도를 사용하였다[24]. CES-D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극히 드물었다' 부터 '대부분 그랬다' 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부 문항을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9였다.

### 2.4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 척도(Subjective Well-being Scale)는 김정호 등(2009)이 주관적 웰빙 척도를 보완하여 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5]. 주관적 웰빙 척도의 하위요인은 삶의 기대와 삶의 만족 2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5문항 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웰빙이 높은 것이다. 주관적 웰빙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적 체험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 모형은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검정으로 분석하였다[32]. 본 연구의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수준에서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주요 연구 변수들의 기술통계

자아정체감과 매일의 영적 체험 경험, 우울 및 주관적 웰빙의 기술통계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자아정체감의 평점평균은 3.34(SD=.40)로 보통에서 약간 높은 수준이었고, 영적 체험은 4.26(SD=.68)으로 약간 높았으며, 우울은 .52(SD=.54)로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주관적 웰빙은 3.35(SD=.72)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연구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값을 분석한 결

과 왜도는 -.11~1.20이었고, 첨도는 -.15~1.98로 나타나 연구 변수들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

**표 2. 주요 연구 변수들의 기술통계 (N=138)**

| 변수 | 범위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자아정체감 | 1~5 | 3.34 | .40 | .05 | .20 |
| 영적 체험 | 1~6 | 4.26 | .68 | .29 | -.15 |
| 우울 | 0~4 | .52 | .54 | 1.20 | 1.98 |
| 주관적 웰빙 | 1~5 | 3.35 | .72 | -.11 | -.02 |

## 2. 주요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 영적 체험, 우울 및 주관적 웰빙 간의 상관계수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자아정체감은 영적 체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32, p<.001),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44, p<.001), 주관적 웰빙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37, p<.001). 영적 체험은 우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고(r=-.11, n.s.), 주관적 웰빙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56, p<.001). 우울은 주관적 웰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9, p<.01).

**표 3. 주요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행렬 (N=138)**

| 변인 | 자아정체감 | 영적 체험 | 우울 | 주관적 웰빙 |
|---|---|---|---|---|
| 자아정체감 | | | | |
| 영적 체험 | .32*** | | | |
| 우울 | -.44*** | -.11 | | |
| 주관적 웰빙 | .37*** | .56*** | -.29** | |

**p<.01, ***p<.001

## 3.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는 경로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변수들이 단축판 도구로 측정하거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들의 신뢰도가 높아 측정오차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변수들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었으므로 경로분석을 위한 추정방법은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e)법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는 Sobel 검정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이 매개하며, 영적 체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6개의 경로계수 중 4개의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매일의 영적 체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계수(영적체험 → 우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β=.03, p=.698),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자아정체감 → 주관적 웰빙)도 유의하지 않았다(β=.14, p=.075). 최대우도추정법은 완전정보법(full information method)이므로 경로계수를 한꺼번에 제거하지 않고 하나씩 수정하면서 경로분석을 반복하였다. 먼저 첫 번째 수정모형1은 경로계수가 가장 적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적 체험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영적체험 → 우울)를 제거한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1은 서로 내재(nested)되어 있으므로, $\chi^2$값의 차이 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수정모형1과 연구모형의 $\chi^2$값의 차이는 자유도가 1일 때, $\Delta\chi^2$값이 .15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p=.698), 영적체험과 우울 간의 경로가 삭제된 더 간명한 모형인 수정모형1을 채택하였다. 수정모형1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경로(자아정체감 → 주관적 웰빙)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β=.14, p=.074), 이 경로계수를 삭제한 수정모형2를 구성하였다. 수정모형1과 수정모형2의 $\chi^2$값의 차이는 자유도가 1일 때, $\Delta\chi^2$값이 3.13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p=.077) 더 간명한 모형인 수정모형2를 채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영적체험과 우울 간의 경로와 자아정체감과 주관적 웰빙 간의 경로까지 제거한 수정모형2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표 4], $\chi^2$값이 3.2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chi^2$값과 자유도의 비가 1.643으로 3보다 작았고, TLI .96, CFI .99, RMSEA .069, SRMR .034로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절하게 나타났다.

**표 4.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 모형의 적합도 (N=138)**

| 모형 | $\chi^2$ | df | p | $\chi^2$/df | TLI | CFI | RMSEA | SRMR | $\Delta\chi^2$ |
|---|---|---|---|---|---|---|---|---|---|
| 연구모형 | 0 | 0 | – | – | – | – | .36 | – | – |
| 수정모형1 | .150 | 1 | .698 | .150 | 1.00 | 1.00 | .000 | .010 | .150 |
| 수정모형2 | 3.286 | 2 | .193 | 1.643 | .96 | .99 | .069 | .034 | 3.136 |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표 5], 자아정체감은 영적 체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β=.41, p<.001), 우울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β=-.44, p<.001). 영적 체험은 주관적 웰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β=.45, p<.001), 우울은 주관적 웰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4, p<.001). 각 변인들의 설명량을 다중상관자승(SMC)값으로 분석한 결과, 자아정체감이 영적 체험을 10.3% 설명하였고, 우울은 19.0% 설명하였으며, 영적 체험과 우울은 주관적 웰빙을 37.0% 설명하였다. 최종모형을 도식화하여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함께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5.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N=138)**

| 경로 | | | B | SE | β | t | SMC |
|---|---|---|---|---|---|---|---|
| 자아정체감 | → | 영적 체험 | .41 | .10 | .32 | 3.957*** | .103 |
| 자아정체감 | → | 우울 | -.44 | .08 | -.44 | -5.665*** | .190 |
| 영적 체험 | → | 주관적 웰빙 | .45 | .06 | .53 | 7.802*** | .370 |
| 우울 | → | 주관적 웰빙 | -.24 | .07 | -.23 | -3.293*** | |

SMC = Squared Multiple Coefficient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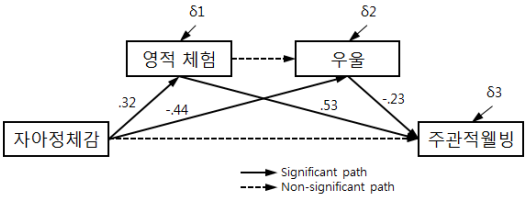


**그림 2.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 최종모형**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Sobel 검정으로 분석하였다[표 6]. 자아정체감이 영적 체험을 통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Sobel 검정결과 Z=3.59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영적 체험이 유의하게 매개변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아정체감이 우울을 통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매개효과 검증결과에서도 Z=2.910(p=.003)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우울도 유의한 매개변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경로가 삭제되었으므로, 자아정체감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영적 체험과 우울이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총효과는 β=.27이었으며, 영적 체험을 통한 간접효과는 β=.17, 우울을 통한 간접효과는 β=.10이었다.

**표 6. 영적 체험과 우울의 매개효과 검정 결과 (N=138)**

| 경로 | 간접효과 | Sobel test | |
|---|---|---|---|
| | β | Z | p |
| 자아정체감 → 영적 체험 → 주관적 웰빙 | .17 | 3.598 | <.001 |
| 자아정체감 → 우울 → 주관적 웰빙 | .10 | 2.910 | .003 |

## IV. 논의

본 연구는 교회 내에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목회자 아내의 행복에 관한 연구로,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적 우울 및 영적 체험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은 행복에 해당하는 주관적 웰빙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영적 체험과 우울이 매개변수로 투입되었을 때에는 직접효과가 감소하고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 영적 체험과 우울이 완전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단변량 분석들을 통해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이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5]를 넘어서서, 자아정체감이 행복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목회자 아내들에게 발생하는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직접적으로 주관적 웰빙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우울을 감소시키고, 영적 체험에 민감하도록 하여 주관적 웰빙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정체감이 우울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일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자아

정체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고[14], 국외에서 목회자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원인으로 정체감을 들고 있어[5], 자아정체감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우울 외에 영적 속성인 영적 체험의 경우에도 자아정체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정체감의 자기수용, 주도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현재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고, 이는 심리적인 우울을 약화시키고 매일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반영된 영적 체험을 민감하게 지각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적 체험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목회자 아내의 영적 체험이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영성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고, 특히 영성의 하위요인 중 내적 자원과 연결성 요인이 유의하게 나타났다[29]는 점에서 자아정체감의 간접효과와 매일의 영적 체험의 빈도가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를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우울과 관련해서는 우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은 영적 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우울을 통한 간접효과도 영적 체험을 통한 간접효과보다 적었다는 점에서 목회자 아내의 행복과 관련해서는 영적 체험이 우울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목회자 아내의 개인적 신앙의 경험과 삶의 문제를 영적인 면으로 극복하려는 목회자 아내들의 속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의 영향은 영적 체험보다 우울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과 주관적 웰빙의 한 요인인 삶의 기대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할 때[26], 목회자 아내에게 발생하는 우울의 중요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둘째, 목회자 아내의 영적 체험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국내에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영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20].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영성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도 있어[30],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적 체험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영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인간을 몸과 마음과 영으로 구분하여 거론하는 삼원론에 입각해 해석해 보자면, 목회자 아내의 영적 체험이 높다하더라도 심리적 우울을 경험할 수 있으며, 영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성이 높으면 인성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속성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영성이 낮은 사람만이 우울한 것이 아니며, 목회자 아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영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시사해 볼 수 있다.

셋째, 교회가 고용한 사람은 목사이지 목사의 아내가 아니라는 점에서 목회자 아내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영성과 우울, 그리고 행복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목회자 아내의 정신건강과 행복은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목회자 아내들은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분명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남편인 목회자의 정체감을 본인의 정체감으로 오해하거나, 자신의 기대와 다른 삶의 형태로 인해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않는 것은 영적,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행복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목회자 아내들의 올바른 자아정체감 형성을 통해 매일의 영적 체험을 증가시킨다면, 행복을 증진하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 아내의 표집이 개신교 1개 교단을 조사하였다는데 연구의 한계가 있다. 개신교 교단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들을 한 자리에서 모두 모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단일 교단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였으나, 추후 보다 다양한 교단을 포함한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본 수가 경로분석을 위한 최소 사례수의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보다 안정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더 많은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초기에 연구자가 우편으로 300부 이상의 설문지를 교회로 발송하였으나 회송된 설문지가 10부 이내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성직자의 가정에 포함된 만큼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별 발송된 설문지의 경우 회신 봉투의 보내는 사람의 주소도 연구자의 주소로 기록하여 비밀이 보장되도록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조의 한계가 있었다. 전국 단위의 목회자 아내들의 모임이 많지 않으므로 추후 조사 방법에 대한 각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의 제안은 목회자 사모학교 등을 열어 목회자 아내를 위한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양강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법론적으로 경로분석은 구조방정식에 비해 측정오차를 추정하지 않는 단점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축판 도구의 사용과 단일요인의 잠재변수들의 신뢰도가 높아 경로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추후 도구 선별에 주의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검정을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목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현재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파악하고,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적 체험과 심리적 우울의 완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더욱 다양한 영적, 심리적 변인들을 포함한 행복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이지숙, “사모의 인생, 남는 건 곪아 터지는 속”, 한국여성신학, 제57호, pp.23-30, 2004.

[2] 장은진, “목회자 아내의 정신건강과 상담에 대한 요구도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6권, pp.187-210, 2008.

[3] 이진영, 전요섭, “목회자 아내의 정서적 고립감 극복을 위한 자기노출과 지지집단 형성”, 한국개혁신학, 제34권, pp.193-231, 2012.

[4] 전정희, 한재희, “자기소외를 경험하는 목회자 아내의 심리사회적 현상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3권, 제1호, pp.159-186, 2012.

[5] D. C. Baker and H. P. Scott, “Predictors of Well-Being Among Pasters’ Wives: A Comparison With NonClergy Wives,”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Vol.46, No.1, pp.33-43, 1992.

[6] 국가통계포털, 건강검진통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정신건강검사 결과, 2010.

[7] 국가통계포털, 국민건강영양조사, 우울증상 경험률 추이, 2012.

[8] L. A. Brackin, *Loneliness, Depression, Social Support, Marital Satisfaction and Spirituality as Experienced by the Southern Baptist Clergy Wife,* The Graduate College of University of Arizona Doctoral Dissertation, 2001.

[9] 변외진, 김춘경,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분석”, 한구심리학회지: 여성, 제12권, 제3호, pp.255-257, 2007.

[10] 이경혜, *중년 기혼여성의 역할적응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1] 홍용인,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돌봄(Caring)의 개념으로 본 목회자 아내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0권, pp.347-378, 2010.

[12] 고효정, 오명옥, 김혜영,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삶의 질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6권, 제4호, pp.619-631, 2000.

[13] 김경신, 김정란,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 및 위기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4호, pp.105-120, 2001.

[14] 한미정, 이지현,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갱년기 증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9권, 제4호, pp.275-284, 2013.

[15] 김정엽, “중년여성의 자아개념과 우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3권, 제2호, pp.103-116, 1997.

[16] L. Underwood and J. Teresi, “The Daily Spiritual Experience Scale: Development, Theoretical Description, Reliabil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Preliminary Construct Validity Using Health-Related Data,” The Society of Behavioral Medicine, Vol.24, No.1, pp.22-33, 2002.

[17] 장영림, *중년기 여성의 영성과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생산성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8] 신희석, “생의 의미가 중년 주부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7권, 제1호, pp.29-45, 2002.

[19] 정덕신, 배성만, 주은선, “영성과 포커싱적 태도가 중년 여성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9권, 제3호, pp.301-314, 2014.

[20] 홍주연, 윤미, “중년여성의 영성이 행복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8권, 제1호, pp.219-242, 2013.

[21] 김명소, 김혜원, 임지영, 차경호, 한영석,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8권, 제2호, pp.415-442, 2003.

[22] C. Lee, “Patterns of Stress and Support Among Adventist Clergy: Do Pasters and their Spouses Differ?,” Pastoral Psychology, Vol.55, pp.761-771, 2007.

[23] 박아청,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5권, 제1호, pp.140-162, 1996.

[24] 배성우, 신원식, “CES-D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제18권, pp.165-190, 2005.

[25] 김정호, 유제민, 서경현, 임성견, 김선주, 김미리혜, 공수자, 강태영, 이지선, 황정은, “‘삶의 만족’은 만족스러운가: 주관적 웰빙 측정의 보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5권, 제1호, pp.187-205, 2009.

[26] 이희연, 전혜성, “중년기여성의 삶의 기대, 마음챙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7호, pp.275-284, 2011.

[27] B. Doolittle and M. Farrell, “The Association between spirituality and depression in an urban clinic,”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6, No.3, pp.114-118, 2004.

[28] 윤갑정, “예비보육교사의 목표, 만족도, 자기효능감 및 우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8권, 제3호, pp.113-131, 2012.

[29] 윤현숙, 원성원, “노인의 영성과 종교 활동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0권, 제4호, pp.1077-1093, 2010.

[30] 장요한, 권명진, “영성프로그램이 갱년기 여성의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4호, pp.437-442, 2014.

[31] 박희숙, *중년 여성의 우울, 자아정체감, 부부의사소통 및 자살하지 않는 이유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2] R. M. Baron and D. M.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저 자 소 개


**김 신 섭(Sin-Seop Kim)** 정회원

- 1982년 2월 : 삼육대학교 신학과(문학사)
- 1988년 10월 : AIIAS 대학원 신학과(목회학 석사)
- 2005년 7월 : 미네소타신학대학원(기독교상담학 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가정상담, 인성교육, 코칭심리

**정 구 철(Goo-Churl Jeo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심리측정・평가, 학교심리, 건강심리